

인터뷰 박민영 전남농업기술원 농업연구사

“맛·수량·재배안정성 함께 맞춰야 경쟁력이 유지된다”

품종 개발은 이제 연구실 안에서 끝나지 않는다. 소비자는 더 달고 아삭한 맛을 찾고, 농가는 기후 변화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수확할 수 있는 품종을 원한다. 시장과 재배 현장의 요구를 동시에 맞추지 못하면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시대다. 전남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박민영 농업연구사는 이런 변화에 맞춰 품종 개발과 재배 기술을 함께 연구하고 있다.

최근 풋고추 시장은 매운맛 중심에서 오이맛고추 소비가 빠르게 늘고 있다. 전남은 2025년 기준 풋고추 재배면적이 486ha로 전국 3위 수준이지만, 여름철 고온으로 인한 낙화와 낙과, 수량 감소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수분과 양분 관리가 불안정하면 과실 형태가 휘고 상품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이어졌다. 재배 규모는 크지만 여름철 생산 안정성이 흔들리면 서 농가 고민도 커지는 상황이다.

오이맛고추 ‘남초’ 개발...여름철 고추 수량 유지 해법 제시 관수·시비 기준 정립...접목·양액재배로 생산 안정성 확보 대추형 토마토 ‘티에스감탄’도 육성...당도·상품성 등 강화

박 연구사는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품종과 재배 조건을 동시에 바꿨다. 그 결과 개발된 품종이 오이맛고추 ‘남초’다. 맵지 않고 아삭한 식감, 은은한 단맛이 특징으로 생식을 소비가 가능해 학 교급식과 로컬푸드 시장에서도 활용 가능성이 높다.

그는 “이제는 수량만으로 경쟁하기 어렵다”며 “맛과 식감, 재배 안정성을 함께 맞춰야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품종 개발 이후에는 재배 기준을 세밀하게 정리하는 작업이 이어졌다. 토양 수

분을 -40kPa 수준으로 유지하고 m²당 5ℓ의 물을 공급하는 조건에서 작과 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평균 3~4일 간격으로 관수가 이뤄질 때 생육이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비료 사용량도 기존보다 약 1.5배 늘렸을 때 여름 이후 수량 감소 폭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났다.

재배 방식 개선도 함께 진행했다. 접목묘를 활용해 뿌리 활력을 높이고 병 발생을 줄였으며, 양액재배를 통해 토경 재배에서 나타나는 염류 집적 문제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했다. 이렇게 정리된 재배 기준은 매뉴얼로 제작돼 농가에 보급됐다.



이로 인해 나무와 화순 실증 재배에서는 약 4개월 동안 안정적인 수확이 가능했고, 여름철에도 생산량이 유지되면서 농가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소비자 평가에서도 변화가 확인됐다. 1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시식 조사에서

‘남초’는 기존 품종보다 높은 선호도를 기록했다. 달고 짭이 많으며 아삭한 식감이 강점으로 꼽혔고, 특히 여성 소비자 반응이 높게 나타났다.

방울토마토 시장 변화도 연구 방향에 영향을 미쳤다. 전남의 방울토마토 재배 면적은 356ha로 전국 2위 수준이다. 최근 시장은 원형보다 대추형 품종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으며, 고당도와 다양한 색상, 기능성을 강조한 제품 수요도 늘고 있다. 반면 기존 상승과 폭염, 집중 호우가 반복되면서 시설재배 환경은 갈수록 불안정해지고 있다.

박 연구사가 개발한 ‘티에스감탄’은 평균 당도 28.5g의 적색 대추형 방울토마토다. 당도는 9.2브릭스 수준으로 높고 과육이 단단해 열과 발생이 적다. 꼭지 빠짐 현상도 줄여 유통 과정에서 상품성이 유지되도록 설계됐다. 상품 수량과 병

해 저항성도 함께 개선해 재배 안정성을 높였다.

그는 “농가는 안정적인 생산을 원하고 소비자는 맛과 외관을 본다”며 “두 기준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품종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농가 실증 재배와 함께 도매시장, 유통업체 평가도 진행되고 있다. 현장에서 나온 문제는 다시 연구로 연결되고, 연구 결과는 다시 농가로 돌아가는 방식이다. 단순히 품종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재배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까지 함께 만드는 연구다.

박 연구사는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어야 연구 의미가 있다”며 “농가가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소비자가 다시 찾는 품종을 계속 개발해 전남 채소 산업 경쟁력을 높여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한국여성경제인협 광주지회, 회원간 ‘소통·교류’ 한자리

나주시 포럼·월례회 개최 현안·사업 계획 등 논의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회장 이민순)는 최근 옛 나주 남평북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 새롭게 조성한 문화예술공간 ‘남평507’에서 과거와 미래를 잇는 제192차 포럼과 월례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따뜻한 도심에서 벗어나 지역 역사와 추억이 깃든 재생 공간에서 구성원 간의 결속력을 다지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빈센트 반 고흐, 세상을 노랗게 물들이다’의 저자인 문화평론자 박지현을 초대했다.

문 작가와 빛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예술 여정을 따라 작품을 감상하며 그의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회장 이민순)는 최근 옛 나주 남평북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 새롭게 조성한 문화예술공간 ‘남평507’에서 과거와 미래를 잇는 월례회 및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제공=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

예술 세계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월례회에서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의 주요 현안 공유,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회원들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각 분과별 회의와 킥오프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교실의 원형을 살린 독서 공간 분위기 속에서 회원 상호 간 소통의 시간을 가진 의미 있는 행사였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친목과 교류가 더욱 돈독해지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이민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

장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머물던 옛 학교 교정에서 새로운 미래를 논하는 포럼을 열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공간이 주는 영감을 바탕으로 협회 조직도 변화와 혁신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고 약속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정일선 광주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민주 영령들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은행

광주은행 “지역은행 역할·책임 다짐”

5·18 민주묘지 참배

광주은행(은행장 정일선)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46주년을 앞두고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고 18일 밝혔다.

참배에는 정일선 광주은행장을 비롯해 임원, 본부 부서장 등 임직원 50여명이 참여했으며, 헌화와 분향을 통해 민주 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광주은행은 매년 5·18을 전후해 임직

원 참배를 이어오고 있다. 광주은행은 이번 참배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ESG 경영 기초 아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정일선 광주은행장은 “5·18은 광주와 함께 성장해온 우리 은행의 정체성과도 맞닿아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지역경제를 지키고, 지역의 미래 발전에 힘이 되는 금융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광주 북구새마을회는 최근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는 참배객들을 대상으로 무료 급수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광주 북구새마을회, 5·18 민주묘지서 생수 나눔

광주 북구새마을회는 최근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는 참배객들을 대상으로 무료 급수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오월 민주 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전국 각지에서 모역을 찾은 참배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북구새마을회 회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민주묘지 앞 부스를 마련하고, 묘지를 찾는 유가족과 추모객, 대학생 등 수많은 참배객들에게 시원한 생수와 커피, 주스 등을 무료로 나누며 따뜻한 위로와 온정을 건넸다.

특히 더운 날씨 속에서 참배객들의 더위를 식혀주는 생수 나눔은 큰 호응을 얻었으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배우기 위해 모역을 찾은 청년 학생들에게도 격려의 메시지가 전해져 훈훈함을 더했다.

이문영 북구새마을회 회장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5·18 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전국에서 발걸음 해주신 참배객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오월 공동체 정신을 이어받아 지역 사회를 위한 따뜻한 나눔과 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글·사진=최기남 기자 bluesky@

조선대총동창회, 베트남 해외문화탐방

개교 80주년 ‘모교 발전·30만 동문 화합’ 동문 기업 BBQ치킨 타임시티점 방문

조선대학교총동창회(회장 정효성)는 조선대학교 개교 8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모교 발전과 30만 동문의 화합을 위해 최근 베트남 하노이 일원에서 해외문화탐방 행사를 진행했다.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열린 이번 탐방에는 총동창회 임원과 동문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현지 문화와 산업 현황을 함께 둘러보며 동문 간 유대를 강화하고, 개교 8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K-푸드 한류 열풍을 이끌고 있는 동문 기업 BBQ치킨의 하노이 타임시티점을 방문해 해외 시장에서 활약 중인 동문 기업의 성과를 직접 확인했다.

BBQ 베트남은 2007년 현지에서 진출한 이후 현재 하노이 지역에서 11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2026년까지 가맹점 100개 개설을 목표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참가 동문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넓혀가고 있는 동문 기업의 성장에 큰 자부심을 나타냈다.

또 탐방단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하롱베이를 찾아 베트남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 속에서 진행된 문화탐방은 동문 간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으로 이어졌다.

양효술 총동창회 사무총장은 “이번 해외문화탐방을 계기로 개교 80주년의 의미를 더욱 깊이 새기고, 앞으로도 모교 발전과 동문사회 결속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jinus@gwangnam.co.kr



조선대학교총동창회는 조선대학교 개교 8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모교 발전과 30만 동문의 화합을 위해 최근 베트남 하노이 일원에서 해외문화탐방 행사를 진행했다.



농협 전남본부(회장 최기남)는 최근 화순군 농촌진흥청과 함께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농촌일손돕기 행사를 실시했다.

바쁜 가운데에도 농촌 일손돕기에 참여해 준 광주대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달 말부터 조생양파와 마늘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일손 수요가

더욱 늘어나는 만큼 전남농협의 가용 인력을 총동원에 적극적인 농촌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전남농협, 화순 복숭아 농가 일손돕기

광주대 학생 등 100여명 참여...적과 작업 지원

농협 전남본부는 최근 화순군 농촌진흥청과 함께 농촌일손돕기 행사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일손돕기에는 농협 전남본부와 화순군지부, 농주농협, 농협자산관리 광주 전남지사 임직원을 비롯해 광주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행사는 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의 지

원으로 진행했으며, 참가자들은 농가의 작업 부담을 덜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광주대는 지난 2022년 전남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매년 10회 이상 농촌 일손돕기와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는 등 지역 농촌 지원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광일 농협 전남본부장은 “학업으로